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한 노숙인 배식 봉사를 마치고



누군가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그 무엇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때가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감당할만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경우도 있다. 12월23일 젊은이 공동체 20플러스 40여명은 후자에 해당하는 ‘누군가’를 만나 그들에게 손을 뻗어 우리가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을 하고 돌아왔다. 바로 ‘밥 한 끼’를 전해주었다.

노숙인 자립 지원 사역을 하는 ‘거리의 천사들(www.st1004.net)’은 97년 IMF로 인해 거리로 쫓겨 나오는 실직 노숙인들을 돌보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거리로 천사들은 ‘달빛봉사’와 ‘별빛사랑’으로 구성된다. 달빛봉사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3시까지 을지로 3가역, 서울시청역, 을지로 입구역, 종각역 지하도 등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일을 가리키며 ‘별빛사랑’은 물질후원을 말한다. 연간 100여명의 노숙인을 자립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별빛회원의 수는 3000여명 정도이다.

이날 젊은이 공동체는 ‘달빛봉사’에 참여해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정해진 코스를 돌며 노숙인들에게 국밥을 배식하는 봉사를 하였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둔 날이었던 23일, 그 날 밤만큼은 나 자신의 추위보다는 그 추위를 견디고 길거리에서 또 기나긴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들에게 닥친 추위를 더 염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쥐어주는 밥 한 그릇에 더 담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아쉬워할 수 밖에 없었다.

봉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노숙인들과 눈을 마주치고 꼭 따뜻한 미소를 지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파 속에서 많은 날들을 지내야 할 그들과 마주칠 때 미소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삶이란 그들에게 선물이나 아니라 너무나 무거운 짐인 듯 했다. 매 배식에 앞서 짧은 기도를 한다. 짧은 순간 만감이 교차하지만 청년들과 함께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려본다. ‘주 예수여 이들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살면서 시련은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길거리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는 들어가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안도의 마음? 막연한 불쌍함과 안타까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명 한명을 위해 오셨다는 것. 이 땅 위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살 곳이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능력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밥 한끼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 선 우리 한명 한명은 그 사랑의 마음을 밥 한 공기에 조심스레 담아 건넨다. 그리고 기도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

듯, 그 형제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길.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한명 한명의 마음에 심겨지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20플러스 서재욱 전도사》

〈새해에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집시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삶이 때론 나를 가지 않아야 할 길로 데리고 가서 길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순간들을 살고 있지만 가끔은 내가 서있는 자리가 자유롭지도 평화롭지도 않아 안절부절 입니다. 시간은 훌쩍 이 순간들을 뛰어넘어 평화로운 꽃밭으로 데려가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절과 주위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머무르고 있는 시간들이 감성적으로 만드나봅니다. 어느새 겨울의 깊은 심연(深淵) 앞에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그러나 성탄 전야 한파로 또 다시 두 어깨를 깊이 감싸 안습니다.

8월 13일 무더위 속에서 처음 빈 51세의 유방암 환자분 12월 24일 성탄을 못 넘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부르시려면 성탄절에 불러 달라는 소망 못 이루었지만 잠시 사는 세상,, 항상 찬송 부르며 사는 세상.. 날이 저물어 하늘나라 오라 하신 삶..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 드렸습니다. 봉사자들은 호스피스 환자분을 뵈 때마다 항상 하늘나라 가시기 전 까지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드릴 것이 무엇가를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생각이 납니다. 놀랄 만큼 맑은 얼굴에 깨끗한 눈망울에 조용조용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던 분.. 봉사자들에 대한 거부감도 없이 편안하게 맞이하셨는데 오른 발에 경련이 일어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느님 믿느냐?’를 먼저 꺼내신 분 “예 ‘하는 봉사자의 답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왠지 다른 느낌이 난다 ‘하신 분..... 만남 속에 대화를 나누며 “살면서 언제나 생각하지만 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대신 채워주고 싶으신지 내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음을 열면 부담없이 다가와 주는 다정스런 사람들, 그 삶속에서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는 예쁜 사람들과 오가면서 남은 인생 살고 싶은데 이것도 욕심 일까요..” 하던 말들이 7년 전 처음 유방암 선고를 받았을 땐 감사했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힘들지도, 어렵지도, 두렵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느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 하였고, 아마도 통증과 함께 그 의심이 들기 시작 하신 것 같이 봉사자와 대화를 하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만난 지 20주 동안의 만남 성탄전야의 만남은 영안실에서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미소와 감사의 고백들...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주님 품안에서 평안하시기를.. 한일병원 호스피스 봉사 네 번 째 맞는 성탄절에 주님 나라로 가는 환우 분과의 은혜로운 작별 깊이 간직합니다.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를 빛으로 채워주시어 저희 자신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지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살핌 안에서 저희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자라나 세상 모든 것으로 흘러가게 해 주소서, 진정하고 깊은 사랑이 저희들에게서 흘러 넘쳐 보살피는 환우들 모두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일병원 호스피스 사역팀 이금순 집사》

해마다 쑥쑥 크길..

허윤정

광야에서 방황하고



상처입고



좌절해도



주님께서 해마다 우리가 회복하고
한뼘씩 성장하게 하십니다



© 2010 By Heo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김병년 목사님의 〈난 당신이 좋아〉입니다. 이 책의 부제 “고통 속에서 부르는 아가”에서 조금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아내 서주연 사모님은 셋째 아이를 낳은 며칠 뒤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뜰 수 없고 말도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6년째 누워 있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만남부터 결혼생활 그리고 그 뒤 6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 왔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늘 “난 당신이 좋아”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사모님, 그러나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했던 남편 목사님이 이제는 그 한마디가 너무 그립고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누워 있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지만 사모님의 남편 사랑은 여전합니다. 귀로는 들을 수 있기에 사모님은 슬픈 이야기에 울고 즐거운 이야기에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모님의 발에 큰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힘든데 두 번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건과 시간을 지나 온 목사님을 통해 광야라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전해 줄 귀한 위로가 이 책에 오롯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 가운데 솔직하게 감정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십자가의 예수님은 고난당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눈물임을 목사님 자신의 피눈물 나는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주며,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위로해 줄 이 소중한 책 〈난 당신이 좋아〉를 꼭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놓치기엔 너무도 아까운 책입니다. 〈박윤정 기자〉

함글함글의 기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하태원 편집장 T.019.313.3073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
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_ 눅 23 : 28

통 권 제 277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1월 2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_ 롬 12: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기도로 다음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2011년 총회의 교육표어는 ‘교회와 함께 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숫자를 바라보며 총회는 지난 2008년 “하나님 나라와 다음세대 부흥”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줄곧 총회는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다음세대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깊은 각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런 총회의 관심과 열정에 동참하는 2011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새해의 우리교회 표어는 ‘기도로 다음세대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감소는 저출산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교회차원에서의 전략이 시급합니다. 사회로부터 비난 받는 교회를 보고 실망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갈 때 한국교회의 미래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한국교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추구하는 교육은 철저하게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교육은 내면을 더욱 중시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을 중시하는 풍조 속에서 젊은 세대는 등한히 되기 쉽지만, 당장의 모습이 아닌 내적인 변화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관점에서 젊은 세대는 가장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교육은 당장의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능성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교육에 더욱 헌신할 때입니다.

또한 교육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셨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당대에 당장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제자들을 교육하심으로 그들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지상명령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끝까지

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결국 교육의 사역이요, 제자화의 사역입니다.

2011년 새해는 교회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 믿습니다. 주님의교회는 교회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습니다. 청소년교육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모토 아래 청소년 사역원을 설립하고, 교육목회원을 통해 전문사역에 힘써 왔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전문성을 더욱 확장시켜 새로운 커리큘럼에 바탕한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간곡한 부탁이시기에 해 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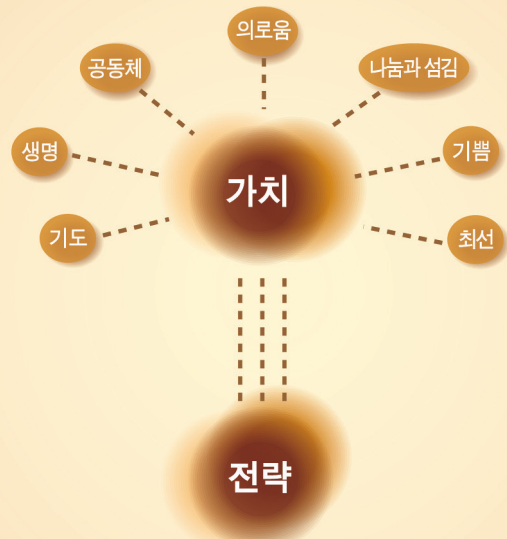
주님의교회가 꿈꾸는 교육은 교회만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원합니다. 교회 뿐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 리더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교육은 더욱더 학교교육과 연관을 맺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회가 분리되고,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교육이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도, 교회도, 교사들도 모두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과 더욱 건설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들이여!

새해에는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주님의 소망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박원호〉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1. 체계적인 말씀사역
2.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활성화
3.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4.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5.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6.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
7. 통합적 환경 복지 사역

주간 목회력

1.9 (주일) ~ 2.13 (주일) 아버지학교 / 오후 4시
1.19 (수) 12단계성경공부 개강 (8단계)

〈연말정산 기부금납입증명서〉

교회 사무실 및 홈페이지 신청

〈2011년 예배관련 변동사항〉

- ① 주일예배에 참회의 기도 추가
- ②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새번역 사용
- ③ 파송의 찬양으로 주기도송 사용
- ④ 찬양대 찬양 후 아멘으로 화답
- ⑤ 4부예배 시간변경 : 2.6(주일)부터 오후2시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2면
러시아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 간증	3면
노숙인 배식봉사/ 잠시 사는 세상에서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2011년 새아침에 드리는 말씀

기도하는 교회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천년(밀레니엄)을 맞이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그 첫 번째 10년을 마감하고 2011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한국의 기독교는 총합으로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6

년에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서 개신교인 수는 10년 새 1.0%(14만 명) 줄어든 반면, 천주교는 74.4%가 늘어났다고 해서 적지 않는 충격을 받았는데, 2010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갤럽을 통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는 더욱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8.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신뢰한다"는 대답은 17.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카톨릭에 대해서는 41.4% 불교에 대해서는 33.5%가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참으로 믿기 괴로운 숫자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복음 전파인데 우리의 전도 대상인 일반 국민들의 개신교에 대한 불신이 그토록 깊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토록 차가운데도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만의 잔치"에 열중하고 있었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중이라는 토양 위에 신뢰의 밑거름이 없다면 어찌 우리의 전도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한 등록교인 증가는 늘어나는 쪽의 숫자만 반영되고 떠나는 쪽의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 전체 교인 수는 항상 허수로 과장되게 마련입니다. 잘해야 겨우 현상 유지 정도였다고 하니 이는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 게임이 되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찌 할 것입니까. 수평이동은 차치하고라도 새로이 복음을 영접하는 새 신자 숫자보다 교회를 떠나는 수가 더 많아져 결국은 전체 기독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우리들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백 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국민의 삼분의 일이 기독교인이며 작은 나라이면서도 미국 다음 가는 선교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동포들의 마음 속에 심어 놓은 "높은 신뢰지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선생이 모두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분들이 나라의 독립과 교육에 바친 큰 희생과 공로가 "기독교는 좋은 종교"라는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사회에 비취지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MBC, SBS를 비롯한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오보이거나 과장된 보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그를 믿어줄 사람들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소영 내각'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개신교가 장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비난 받고 있으며, 성직자 소득세 면제 주장이나 '봉은사 땅 뽕기 사건' 등으로 한층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대학생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러워 손을 들 용기마저 없어졌다고 하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선교 프로그램과 훌륭한 교회건물과 편의 시설, 그리고 각 교단과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여기에 속한 많은 교역자와 신도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교인의 숫자가 마이너스 성장

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인 일반 국민들 마음속에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줄 때에 만, 사람들은 우리를 믿게 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외람되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잘못하고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크신 역사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개교회의 교인수가 아니라 전체로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근본적인 관심을 두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제일주의나 물량충배의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건축물보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취지는 교회의 모습에 더 마음을 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 줄어든 10년이었던 새 밀레니엄의 두 번째 10년은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10년, 늘어나는 1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복음전파의 명령을 잘 이행한 종으로서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 형제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였으며, 믿지 않는 이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는지 통절한 자기반성과 회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 모습을 되찾아가는 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작은 발걸음을 먼저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크신 역사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을 '주님의교회'라고 지어 놓고, 다른 교회로부터 욕도 많이 먹었다. 뭐 저희들만 주님의 교회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고집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 우리가 주

님의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거나 예배당이 아름답다거나 성도의 수가 많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자기 소유의 예배당을 짓지 않기로 하고 강남 와이엠씨에이(YMCA)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10여 년 전에 정신학원 부지에 강당을 지어 학교에 기증하고 그 강당을 장기 임대하여 예배 처소로 쓰기로 한 것은 그 당시에는 분명 신선한 충격이었다. 크고 작은 모임에서 또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분에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한 교회가 있느냐"고 하면서 놀라워했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이를 불편하게 느끼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첫째로, 교회가 (여)학교의 교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자유롭게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로, 성도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교회가 종합운동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 즉 마라톤 경기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불편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겠다고 다짐한 초심을 잊어 버렸거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정신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눈을 잠시 교회 밖으로 돌려 보자. 국내에는 아직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또 실업자, 노숙자나 새터민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불우이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나라 밖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으며,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통한 이웃사랑에 더욱 헌신하도록 하자.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통한 이웃사랑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신년특집 -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 러시아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

__서정운 (장신대 명예총장)

1. 현대선교신학 사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이들 중에 칼 바르트(Karl Barth)가 있습니다. 그는 조 직신학자로 유명하지만 어떤 이는 그를 현대선교신학의 개척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스위스에 돌아왔으나 여의치 않는 목회 때문에 매우 고심하였습니다. 자기가 배운 신학과 그에 근거한 목 회가 목회현장에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에 실천적 신학에 조예가 깊은 투르나이젠과 교 류하게 되고 그의 고민을 안 투르나이젠의 권유로 토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게 되었습니다. 투르나이젠 은 칼 바르트가 배운 그 시대의 신학이 목회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초에 유럽을 지배했던 낙관주의에 물든 신학사상에서 헤어나지 않고서는 바른 목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의 작품들을 통하여 칼 바르트는 죄악 때 문에 모순과 갈등이 가득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세계의 부조리성을 깨닫게 되고 그의 신학적 입장을 바꾸 게 되었습니다. 죄악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임의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읽고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같은 입장으로 로마서를 읽고 풀어 쓴 책이 그의 “로마서주 석”이었습니다.

바젤 선교회의 총무였던 칼 하트슈타인이 쓴 “칼 바르트의 신학이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책자에서 그는 칼 바르트를 통해 선교는 겸손히 해야 하는 것, 인간이 선교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 지 성령만이 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칼 바르트는 선교에 대해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 을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겸허하게 하나 님의 성품과 목적과 방식에 성실한 선교를 강조하였습니다.

2. 토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속에서 “대심문관의 이야기”를 통해 제도화되고 세속화된 교 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는데 그것은 교회의 타락으로 교회가 영적, 도덕적 지도력과 영향력을 잃 었고 민중의 반감속에서 1917년의 볼셰비키혁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딴 도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중 하나인 이삭 성당을 위시해서 많은 기독교적 건축물들과 예술품들이 가득찬 Petersburg에서 무신론을 주창한 반교회적 혁명이 봉기한 것은 우리에게 교회와 선교가 어떠해야 하느냐 는 것을 반성케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기독교적인 것으로 가득찼던 도시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찾고 고통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Petersburg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의 공 통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생활 중에 우상숭배자들인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방과 모멸을 겪을 때에 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시입니다. 이방우상숭배자들의 신은 나무, 돌, 구리, 은 또는 금으로 만들었 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 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게 된 우상숭배자들이 그들이 승리자라고 이스라엘백성을 조롱하고 욕박 질렀던 것입니다.

러시아교회는 역사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온 교회입니다. 모슬렘과의 문제, 교황중심의 서방교회와의 갈 등과 볼셰비키혁명 이후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뼈를 찌르는 칼같은 (시편 42:10) 소리에 마음 아프게 살았습니다.

3. 이방우상숭배자들의 질문과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그리스도였습니다. 요 1:18에 “본래 하 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골 1:15 에도 “그(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요14:9)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로 세상에 오 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교회) 가 예수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러시아 선교는 러시아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요1 서 4:12에 그 해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 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 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요1서 4: 16)이 시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교회가 지닌 구원의 개념의 특징은 신화된 일 것 입니다. 베편 1:4의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 는 자가 되게 하려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지시는 것을 (share the divine nature) 을 구원의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러시아인 의 이해도 그러한데 예컨대 토스포에프스키가 가장 좋아했었고 지금도 그의 묘비에 새겨져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는 말씀은 사랑 을 뜻하는 것 입니다. 또한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와 “사람은 무엇 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통해 추구하고 전달하고 있는 의미도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입니다.

4. 토스포에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중에서 대심문관이 예수님을 가두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와서 우리를 방해하느냐고 심문하며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하는 “대심문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보다 교회와 교회 관계자들이 더 중요시되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 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과 교회보다 자기의 이권과 지위와 목적을 더 중시하는 교회관계자들의 태 도와 사역의 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런 폐단은 선교사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삶으로 선교가 죽는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자 신의 목표와 업적과 이름을 하나님과 교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는 죽는 선교입니다. 한 알의 밀이 그냥 있으면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 에 떨어져 썩으면 자체가 없어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은 씨앗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죽고, 선교가 사는 선교를 해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계 획과 방식으로 업적을 쌓고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원리를 논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선교사업

을 방해하느냐고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는 선교는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는 사람들의 평가, 자기의 목적과 치적보다 하나님의 목적과 러시아인의 구원과 러시아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사랑으 로 헌신하는 선교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결단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 다. <주> 이름은 조원호 장로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신년특집 간증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저는 세 살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아 고열로 인해 소아마비에 걸려 한쪽다리가 불 구가 되었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손가락질과 많은 놀림 속에 제대로 친한 친구 한사람 없이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술을 좋아하셔서 늘 집 안에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집들보다 우리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 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전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제가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속 신 앙이 유난히 강했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부터 저는 교회를 나 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매도 맞았고 때로는 밥도 굶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 도 뭐가 그리 좋았는지 주일마다 늘 교회를 갔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외로움이 없었 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5년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신 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싫어졌고 저에게서 어머니까지 데려가신 주님을 원망하며 한동안 교회와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생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저절로 했었습니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교회가 아닌 생활 속에서 눈을 감고하지 않고 눈을 뜨고 했습니다.

97년 아는 사람의 집에 갔다 나오다가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점점 그를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처럼 그에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눈에 뭐가 들어가서 한참을 비비다가 그를 봐서 눈이 잘 안보였을 때 봐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 몇 개월 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유로 전 다시 교회를 나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주님의교회를

2003년 12월 다리의 관절이 붓고 아파서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 님으로부터 희귀성 난치병인 베체트병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병명에 이병이 어떤 병인가 물어보았더니 관절도 아프고 장 쪽에 출혈도 생기면서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눈에 실명도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 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십 니까? 그 후부터 저는 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알아보기 못할 정도로 부었고 그런 저를 지켜보는 아내는 마치 아내가 희귀병에 걸린 것처럼 힘들어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 번이나 더 병원신세를 져야 했 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 들은 더욱 더 저를 괴롭혔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 생각해도한 가지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 기는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나, 돌 봐주시거나, 제부탁을 들어주시거나,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신앙고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들여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제 속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 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병원은 다 가서 검사를 해 보았지만 자연 임신은 안 되니 시험관 아기를 해 보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최종적으로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 님 저희에게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힘들어서 안주시는 건가요? 저희에게 아기를 주세요! 만일 안주신다면 저희 부부가 힘들어서 안주시는 것 이라 생각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 다.”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교회 구역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도 우리 를 위해 많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2005년 아내의 권유로 나가게 된 아버지학교 중보기도팀에서도 저희 가정과 아기임신을 위해 기도 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수료식 며칠 지난 후 아내는 속이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임신 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병원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욱 놀 라운 것은 자연 임신을 할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 자연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선생 님도 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9년 만에 저를 쏙 빼닮은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 습니다. 2009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심한 호흡곤란 과 대장의 심한염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있기에 그 아이에게 아빠가 아직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지 못했기에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진통제 8개와 스테로이드 제 20알 이상을 먹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주 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생각으로 늘 기도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과 많은 집사님들도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가시면 많은 힘이 생겼고 옆에 다른 환자분 면회 오 신 분이 기도를 하고 가실 때 저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해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 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자주 오셔서 저의 발을 닦아주시고 주물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해 주신 김 양자 장로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7월 퇴원을 하여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해를 넘기지 못할 것 이라고 했던 2009년도 지나가고 2010년이 되어서도 조금씩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신촌 세브란스 병 원 외래 여덟 개 과에서 다섯 개 과로 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정말 힘들어 할 때마다 늘 다른 모 습으로 제 옆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통에 몸부림 칠 때마다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만져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 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10년을 보내며 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하 고 기도했던 것은 다 들어 주셨고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아픈 것도 잊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 셧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에는 새로운 약의 개발로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 절히 바랍니다.

<김주옥 집사 1-39>